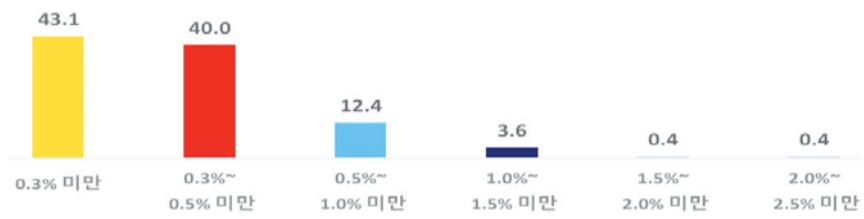


중소·소상공인 2면

소상공인 절반 “고용유지 걱정 최저임금 8500~9000원”

소공연, 전국 700명 대상 실태조사
현 최저임금 87% “부담 크다”
8500원이면 57.7% “추가 고용”
내년 최저임금 74.9% “인하” 요구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시, 걱정 수준〉



소상공인의 절반 가량은 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8500~9000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10곳 중 6곳 가량은 최저임금이 8500원 정도면 고용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5월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고용 유지 가능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가장 많은 54.7%가 8500~9000원으로 답했다. 이외에 9000~9500

원은 22.5%, 8500원은 18.8%, 9500~1만원은 4%였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92.7%는 최저임금이 올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추가로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은 57.7%가

8500원, 35.9%가 8500~9000원이라고 각각 답했다.

9000~9500원 사이는 6.4%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9500원 이하가 되어 고용을 더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의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이 크다’는 답변은 87%(매우 부담+부담)로 매우 높았다. ‘전혀 부담이 없다’는 답변은 제로(0)였다.

또 절반이 넘는 55%는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74.9%가 ‘인하’를, 23.6%는 ‘동결’을 각각 원했다. ‘인상’이란 답변은 1.6%에 그쳤다.

인상해야한다면 적정 수준은 43.1%가 ‘0.3% 미만’이라고 답했다. ‘0.3~0.5% 미만’도 40%였다. 10곳 중 8곳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을 ‘0.5% 미만’으로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美 232조 관세 개편... 中企 10곳 중 6곳 “부속서 파악 못해”

중기중앙회, 수출 中企 600곳 조사
20.8% “개편 뒤 관세율 상승”
평균 인상 폭 16.2%포인트
76% “관세 부담에 채산성 악화”



지난 4월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아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시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안이 지난 4월 6일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자사의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 개편안으로 5곳 중 1곳은 관세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미 협상 강화 등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

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

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수출 품목이 ‘부속서 II’(16.5%), ‘부속서 III’(11%), ‘부속서 I-A’(8.3%), ‘부속서 I-B’(7.8%) 순에 각각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 개편으로 관세율이 높아졌

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이들 기업의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16.2%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대미 수출 전망에 대해선 부속서 분류별로 체감 영향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I-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I-B’ 해당 기업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II(67.7%)와 III(42.4%)에선 ‘변화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부속서별로 관세 개편의 영향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군이 단순 금속 합량만을 기준으로 부속서 I-A에 일괄 분류돼 고율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를 위해 대미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 AI로 기기·의료 잇는 ‘커넥티드 케어’ LG엔솔, 글로벌 첫 배터리 특허 10만건

비바테크서 디지털 헬스비전 공개
헬스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젤스와 의료진·환자 실시간 연결



박현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6’ 패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스타트업-테크 박람회인 비바테크(Vivatech)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가전, 의료 플랫폼을 연결하는 건강관리 비전을 공개했다.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기기와 서비스를 연계한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 생태계를 앞세워 디지털 헬스 사업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6’에 참가해 ‘더 건강한 내일’의 초대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했다. 올해 10번째인 비바테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기술 행사로 165개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스타트업 1만5000여개와 전시업체 4500여곳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AI 기술을 매개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 삼성 헬스, 스마트싱스, 가전, TV를 연결해 집 안에서 끊임 없는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하는 ‘커넥티드 케어’ 비전을 제시했다.

커넥티드 케어는 삼성전자의 통합 건강 플랫폼인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구현된다. 삼성 헬스는 수면, 활동, 식이, 마음

건강, 생체 징후 등 5개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전시관 내 ‘삼성 커넥티드 케어 에코시스템’ 존에서 삼성 헬스 7.0 업데이트를 통해 강화된 기능도 소개했다. 새 버전에는 심장 건강 점수(Heart Health Score), 수면 중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바이탈스(Vitals), 유산소 운동 부담을 측정하는 일일 심혈관 부하(Daily Cardio Load) 등이 포함됐다.

의료 플랫폼과의 연계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 계약을 발표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젤스(Xealth)와 협력해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하는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등록 기준도 5만9000건 확보
지난해 R&D 1조3277억 투자
소재·셀·팩 전 영역 원천기술 축적

LG에너지솔루션이 30년 넘게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기준 글로벌 특허가 등록 기준 약 5만9000건, 출원 기준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배터리 기업 가운데 글로벌 출원 특허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특허를 미래 성장동력이자 사업 경쟁력

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고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온 점이 글로벌 특허 확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처음으로 연간 연구개발(R&D)비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277억원을 R&D에 투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재와 전극 설계, 셀, 팩,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제조공정 등 배터리 전 영역에서 원천기술을 축적해왔다. 대표 특허로는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음극 더블 레이어 코팅(DLD), 탄소나노튜브(CNT) 선분산 기술 등이 꼽힌다.

로컬·수출 유망 소상공인 가린다

중기부, 22일부터 2주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한 로컬·수출 소상공인을 발굴한다.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통합 오디션은

핵심 소재 분야에서도 고전압 전해질,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미드니켈 NCM(NCM523, 622), 실리콘 음극 등 주요 기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특허 소송에서 권리 보호 역량을 입증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차세대 기술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위닝테크(이기는 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각형 LMR(리튬망간리치) 배터리와 건식전극 등 미래 기술 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라이선스 체계 구축과 기술 교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컬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 모델 고도화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 오디션은 총 1만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